



책 속으로 ‘북캉스’ 떠나요

문학기자가 추천하는 ‘북캉스’ 책

‘등골 오색’ 추리 소설·감성 담은 시집
힐링 에세이·사유 넓혀주는 인문학 등

며칠 전 폭우가 쏟아진 이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더위를 피해 여행을 떠나는 이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집이나 편안한 공간에서 책을 읽는 이들도 적지 않다.

책(북)을 읽으며 휴가(바캉스)를 보내는 것을 ‘북캉스’라고 한다. 이번 휴가철에는 차분하게 북캉스를 즐기는 것도 좋을 듯하다. 등골이 오싹한 추리 소설을 비롯해 다양한 이야기가 담긴 소설집 그리고 사유를 넓혀주는 인문학, 감성을 담은 시집, 힐링을 주는 책 등을 소개한다.

▲**안녕이라 그랬어**(김애란 지음)= 섬세한 감정을 특유의 예리한 문체로 풀어내는 김애란 작가가 8년 만에 펴낸 작품집. 작가의 다섯 번째 소설집인 이번 작품집은 집, 방과 같은 일상의 공간이 환기하는 의미 등을 섬세한 문장으로 그렸다. ‘홈 파티’, ‘숲속 작은 집’, ‘좋은 이웃’, ‘이물감’, ‘레몬케이크’, ‘안녕이라 그랬어’, ‘빗방울처럼’ 등이 실렸다. 인간 내면에 대한 서늘한 관찰과 묘사, 센스 있는 언어 구사와 맞물린 사회와 개인의 관계에 대한 물음 등은 생각거리를 던져준다.

▲**아홉 명의 목소리**(피터 스완슨 지음, 노진선 옮김)= 현대 스릴러를 대표한다는 평가를 받는 미국 작가 피터 스완슨의 신

작이다. 추리소설의 대가 애거사 크리스티의 ‘그리고 아무도 없었다’에서 착안을 했으며 고전적인 플롯에 추리요소를 첨가했다. 9명의 사람들이 수수께끼의 명단을 받는 것으로 서사는 전개된다. 과연 누가 범인이며 그의 목적은 무엇인지, 마지막 생존자는 누구인지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한다.

▲**이따의 도시 관찰일기**(이따 지음)= 이따 작가는 매일 집을 나서 1시간씩 도시를 걸으며 다양한 풍경을 접한다. 이전에 퍼냈던 ‘이따의 자연 관찰 일기’의 후속편과 같은 책이다. 전작이 자연을 향한 시선이었다면 이번에는 도시로 눈을 돌려 변화하는 모습을 담았다. 곳곳에서 마주하게 되는 것들은 나무, 가게, 버스, 간판 등 다양하다. 도시의 어느 곳이나 있을 법한 사물과 풍경이지만 저자의 애정이 투영돼 새로운 감성을 선사한다.

▲**여름이라는 그림**(이원율 지음)= 책은 여름에 어울리는 그림을 모티브로 전개된다. 집푸른 바다와 녹음이 우거진 숲림, 입안을 즐겁게 해주는 단맛이 밴 과일 등 여름은 선사하는 즐거움이다. ‘파도와 햇살이 춤추는 계절’에서는 여름의 시원한 풍경과 감성을 조르주 쇠라, 클로드 모네 등의 작품을 통해 만난다. ‘푸른 그늘 아래 쉬어가는 계절’에서는 루트비히 페르디난트 그라프의 시원한 ‘수영장’ 그림 등을 볼 수 있다.

▲**원대 풀 월드**(김제민 지음)= 한여름, 숲에는 이름도 모를 다양한 풀들이 무성하다. ‘잡풀’이라는 명칭은 쓸모없는 식물이라고 인간이 규정한 편견일 수도 있다. 잡초와의 인터뷰를 그림으로 표현한 ‘당신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는 희극적이지만 깊이있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저자는 “제때

로 뺏어나가는 것 같지만 실은 주어진 조건 속에서 법칙과 질서를 따라 성장하고 움직인다”고 이야기한다.

▲**자꾸만 꿈만 꾸자**(조은윤)= 지난 2019년 문화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한 시인의 두 번째 시집. 그는 실패와 넘어짐이 많은 세상에서 ‘그림에도 불구하고’ 꿈이라도 자꾸 꾸자고 속삭인다. 그 의미가 담담하면서도 정감있게 다가오는 것은 ‘자꾸만 꿈만 꾸자’는 거꾸로 읽어도 똑 같이 읽히고 의미도 동일하다는 점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삶과 죽음 사이에 존재하기에 오늘을 긍정하며 하루하루를 의미있게 살아가야 한다고 전한다.

▲**역사 이야기를 읽는 밤**(정기문 지음)= 역사는 학문이자 이야기로 다가갈 수 있는 문학이기도 하다. 흥미롭고 이색적인 역사 이야기를 담은 이번 책은 이집트부터 로마제국, 중세, 근대에 이르는 서양인들의 삶과 풍습에 초점을 맞췄다. 오늘날의 관점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기묘한 관습부터 이색적인 법률 등에 이르기까지 다채로운 에피소드와 일화가 담겨 있다. ‘숨겨진 역사’를 알아가는 재미는 무더위를 저 멀리 날려버릴 것 같다.

▲**선생님, 지도에 없는 이야기 하나 들려주시죠**(노승대 지음)= 지난 1993년부터 ‘바라밀문화기행’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는 저자가 펴낸 인문 에세이다. 42년에 걸쳐 전국 명승지와 고적, 역사가 깃든 곳을 찾아 부지런히 발품을 판 결과물이다. 삼척, 완주, 남원, 안동, 보은, 부안, 화순, 나주, 서산, 여주 등 저자와 함께 떠나는 명승지 기행은 과거 우리 역사에 스민 시간과 기억을 다채롭게 만나는 기회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어린이가 만든 영화 정남진에서 만난다

장흥 정남진시네마, 30일
‘그때 우리는’ 등 4편 상영

땀방 난 머리가 부끄러워 학교 가는 발걸음이 무겁다. ‘친구들이 뭐라고 놀릴까’, ‘아빠는 왜 이렇게 머리를 잘라줬을까’. 교실 문턱 앞에서 걱정이 꼬리를 문다.

사소한 일에 낙담했다가도 금세 환하게 웃는 아이들. 그런 순수한 시선으로 빚어낸 진짜 어린이 영화가 스크린 위에 펼쳐진다.

장흥 정남진시네마에서 오는 30일 오후 2시부터 특별한 상영회가 열린다. ‘필름정거장: 언어의 환승’가 그것. 이번 상영회에서는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아이들이 함께 만든 단편영화 4편이 상영되며, 감독과 관객이 직접 소통하는 자리도 마련된다. 행사는 전남문화재단의 ‘2025 문화가 있는 날-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 중 하나인 ‘문화요일 글빛장흥’ 여름방학 특집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상영작은 모두 어린이·청소년이 주인공이자 창작자인 작품들이다. 우선 개막작인 ‘그때 우리는’은 1990년대를 배경으로, 아빠가 잘라준 머리 탓에 ‘땀방’을 걱정하며 등굣길에 나선 소년 율빈의 하루를 그린다. 소심하고 평범한 아이가 친구들의 시선을 마주하는 성장의 순간을 솔직하게 담아낸다. 이어 상영되는 ‘PET’는 환경을 위해 페트병을 사용하지 말라고 잔소리하는 명우와 그런 친구가 귀찮기만 한 나영의 갈등과 우정을 담았다.

‘반칙왕 민준이’는 친구들을 놀리기 좋아하던 문제아 민준이 반장 선거에 도전하면서 벌어지는 좌충우돌 코미디다. 엉뚱한 전략과 당돌함으로 무장한 민준의 이야기는 아이들 특유의 에너지와 웃음을 선사한다. 마지막 작품 ‘공작공작’〈사진〉은 충장로 한복판 작은 학교에서 벌어지는 첫사랑 이야기다. 공작놀이 속 손끝에서 피어나는 감정은 풋풋하면서도 진지하다. 모두 토레 관객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학교라는 가장 일상적인 무대를 생생하게 담아낸다.

영화가 끝난 후에는 작품을 연출한 감독들과의 대화 시간이 열린다. 박한솔·김아솔 감독이 무대에 올라 제작 뒷이야기와 아이들과 함께한 작업 과정을 공유할 예정이다. 상영 전에는 영화 속 장면을 배경으로 한 포토존 ‘글빛 사진관’도 운영된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윤상하·이인성·정승원 전속작가전
예술공간 집, 8월 5일까지

창작자가 일정 기간 갤러리에 소속돼 창작활동을 펼치는 시스템을 ‘전속작가제’라 한다. 작가와 화랑 모두 활발한 활동을 매개로 동반 상승을 지향하는 공통의 목적을 갖고 있다. 지역에서는 (재)예술경영지원센터의 사업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예술공간 집은 지난해부터 ‘전속작가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윤상하, 이인성, 정승원 작가 3인이 선정돼 활동을 펼치고 있다.

현재 예술공간 집에서는 3인 작가의 향후 창작을 가능케할 수 있는 전시가 진행 중이다.

지난 15일 개막해 오는 8월 5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 주제는 ‘프로로그, 세 개의 이야기’. 주제가 말해주듯 전시는 이후 작가가 써 내려갈 창작의 단편을 일정 부분 가능할 수 있는 자리다.

먼저 일상과 꿈의 경계를 오가며 자신만의 화법으로 섬세하게 풀어내는 윤상하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는 인간의 내면에 초점을 맞췄다.

‘felldown children’은 기억과 시간, 현실과 꿈, 일상과 무의식 등을 넘나드는 그림이다. 화면 속 등장인물은 어린이, 청소년 동물 등이 어우러져 환상적인 장면을 연출한다. 작가의 내면에 드러워진 세계가 앞으로는 점점 복잡해, 다층화될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내면을 응시하는 깊이 있는 작품을 선보여온 이인



왼쪽부터 윤상하 작 ‘felldown children’, 이인성 작 ‘Surf’, 정승원 작 ‘Swimming Pool Sud Bad’.

성 작가는 관찰자 시점으로 대상을 바라본다.

이번에도 ‘주황색 집’은 예의 없이 화면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파도타기라는 의미를 지닌 ‘surf’ 작품은 현실을 바라보는 감정을 은유적으로 표현했다. 일견 낭만의 파도타기처럼 보이나 낭만 뒤에 드리워진 현실의 무게를 가능케 하는 건 어렵지 않다.

관화를 주 매체로 창작활동을 해온 정승원 작가는 올해 시립미술관 국제제지전시 작가로도 활약하고 있다.

‘Swimming Pool Sud Bad’는 작가의 노리에서 형상화된

장면들이 자유자재로 배치된 화면처럼 보인다. 수영장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은 일상적으로 보이지만 보는 이에 따라선 특별하게 다가온다. 표제가 주는 날카로움과 섬세함은 여름날의 무더위를 저만치 밀어내는 효과를 발한다.

예술공간 집 문화영 대표는 “이번 3인의 전시는 프리뷰 성격을 담은 것으로 앞으로 창작 전개 과정을 예상해볼 수 있는 계기라며 “저마다 개성적인 시각과 방식으로 창작세계를 일궈가는 3인 작품을 감상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바람 타고 북극 여행 떠날까... 눈송이로 변할까 이강하미술관 ‘우리는 북극탐험대’ ...9월 6일까지 초 3~5학년 대상 무료

무더운 여름 ‘눈송이’로 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그리고 바람을 타고 북극으로 여행을 떠나면 어떨까.

어린이들이 북극을 모티브로 무한한 상상력과 예술적 가치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마련돼 눈길을 끈다. 이강하미술관이 펼치는 ‘2025 우리는 북극탐험대’가 그것.

미술관은 양림동의 다채로운 문화자원을 토대로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오는 9월 6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캐나다와 약 3년(2023~2024년)간의 국제문화교류를 통해 북극에 다녀온 온 기획자와 예술가들이 준비한 콘텐츠로, 지난해 진행된 ‘어린이 북극탐험대’를 보완했다.

프로그램은 무료이며, 초등학교생 3~5학년을 대상으로 참여 가능하다. 구체적 프로그램은 이강하미술관 및 양림동 일대에서 오는 9월 6일까지(매주 토, 일 오전 10시~오후 1시) 11회차 과정으로 펼쳐진다.

광주의 유무형의 자산인 오월어머니집을 비롯해 무등산,

광주전, 양림동 버드나무 오거리를 중심으로 전개된다. ‘역사-연결-기억-상상’을 매개로 북극과 광주를 탐험하며 예술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된다.

미술관 이선 학예실장은 “이번 프로그램은 근대역사문화마을인 양림동에 있는 다채로운 문화유산·역사자원을 상상력을 토대로 북극과 연결해 구성했다는 점이 특징”이라며 “예술가의 시선을 통해 연결된 장소성과 역사성 등이 어린이에게 무한한 상상력의 소재로 해석될 수 있도록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일보 유튜브
3000만 뷰 돌파

국립광주과학관서 국악 한마당 시립창극단, 8월 2~3일 창극·민요 등

무더운 여름, 과학관 한복판에서 시원한 국악 한마당이 펼쳐진다.

광주시립창극단이 오는 8월 2~3일 오후 1시와 오후 3시 총 4차례에 걸쳐 국립광주과학관 1층 중앙홀에서 ‘과학관 국악한마당’을 선보인다. 이번 공연은 ‘풍류 in 광주’ 특별기획공연의 하나로, 전통예술 향유 공간을 도시 전역으로 확장하고 시민들이 전통예술을 보다 친숙하게 즐길 수 있도록 마련됐다.

우선 8월 2일에는 판소리와 민요의 정서를 현대 감각으로 풀어낸 이은비의 ‘국악가요’, 남도 지역 특유의 감칠맛이 느껴지는 정선삼·이지선·이유빈의 ‘남도민요’ 무대, 그리고 풍물과 춤이 어우러져 흥겨운 ‘판굿’과 ‘버귀춤’이 이어진다. 북, 장구, 징, 탕고리의 율림과 함께 펼쳐지는 다채로운 장단이 관객들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3일에는 단막창극 ‘광한루’가 무대에 오른다. 춘향전의 도입 대목을 중심으로 이몽룡과 춘향의 첫 만남을 그린 작품이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